영세아파트의 '명품 서포터즈'

광주 두암동 밤실마을 '아파트 공동체 살리기'

"밤실마을은 어떤 명품 아파트보다 소중한 우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것은 당연하지요."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영구임대아파트인 밤실마을 4단지 앞 화단. 주민들로 구성된 '밤실마을 서포터즈단'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서포터즈로 이름 지어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100ℓ 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화단이나 공터 풀 속에 버려진 빈병이나 생활쓰레기를 치웠다. 이날 주민들이 2시간가량 주워담은 쓰레기는 모두 5포대.

입주민 60% 기초생활자

서포터즈단은 임차인 대표, 부녀회, 실버봉사단 등 밤실마을 아파트 주민자생단체 소속 주민 40여명이 모여 꾸린 봉사단. 이날 오전 10시 발대식을 갖고 아파트 환경 정화활동을 나선 것이다.

지난 1993년 지어진 밤실마을 아파트에는 모두 1천13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184세대, 장애인 278세대 등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많다.

2003년부터 봉사단 구성

임차인 대표 모임에서는 야간방범 활동을 담당하고, 부녀회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밑반찬 배달과 안부전화 드리기, 60~70대로 구성된 실버봉사단은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 지킴이를 맡는 식이다.

또 밤실마을 통장단, 늘푸른회(장애인 모임) 등 5개의 주민자치단체 대표들은 한달에 한차례씩 모여 '질서가 없는 동네' '못사는 동네'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을 씻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2004년 '아파트 화단조성 사업', 2005년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노변 화분 설치' 2007년 '문화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청소·방범·독거노인 돌보기

특히 지난해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 시범사업에 선정돼 아파트 옆 공터에 1천500㎡ 크기의 야외공연장도 만들었다. 지난 2월 정월대보름 행사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밤실마을 체육대회까지 각종 행사를 준비중이다.

올해는 지난 2006년부터 모은 재활용품 수익금으로 아파트 중앙쓰레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다. 중앙쓰레기장 외부 디자인을 비롯해 필요한 시설 등 각종 아이디어는 모두 주민들이 제공했다.

소외 극복 희망 만들기

5년째 실버봉사단에서 활동 중인 박서운(여·72)씨는 "돈은 없지만 몸으로라도 봉사를 하고 싶어 참여했다"며 "함께 어울려서 청소를 하다 보면 운동도 되고 아파트도 깨끗해져 오히려 즐겁다"고 말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달산) 임경화 사회복지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외와 차별이라는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으로 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밤실마을 서포터즈단을 통해 희망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3동 밤실마을 4단지 앞에서 '밤실마을 서포터즈단'이 아파트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역·대인광장 조명타워 이달말 점등

월드컵 4강로·상무로 등 노후 가로등도 전면 교체

광주 도심의 야간 풍경이 바뀌고 있다.

시가 심야에 밝고 환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이 심야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상무로(극락교~공항입구·2.6㎞) 일대 노후 가로등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월드컵 4강로(기아자동차~염주체육관·6㎞)에서도 가로등 바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무로 가로등은 설치 20여년이 경과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쳐온 대표적인 조명시설이다.

또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광주역, 대인광장, 송정역 광장에 15m 높이의 조명타워를 설치, 이달 말 점등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다 내방로, 상무로, 무등로, 북문로 등 4개 노선 24㎞ 구간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밝기와 미관을 고려해 한층 밝고 간결한 디자인의 가로등주(柱)를 선정, 시공하고 있다. 평균 조도도 기존 15룩스(Lux)에서 35룩스로 크게 높혔다.

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실적을 자체 평가한 뒤 오는 2009년에는 8개 노선에 모두 120억원을 투입, 도심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을 통해 외지인들에게 광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가로등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주의 야간 풍경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수요일의 인문 향연

전남대 인문학 특강 두번째 섹션 16일 광천동 유스퀘어서 첫 강의

전남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수요일에 인문 향연'의 두 번째 섹션 '인문학 특강'이 16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고속터미널 유스퀘어 2층에서 첫 강의를 맞이한다.

첫 번째 섹션인 '우리 역사 이야기'는 김당택(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한국사, 왜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일 첫 강의를 시작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연구하는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임채완(전남대 정치외교과) 교수는 이날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임 교수는 강연에서 ▲디아스포라 개념과 유형 ▲중국인과 유대인 그리고 인도인 등 타 민족 디아스포라의 소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전시관 건립과 세계 한상대회 광주 유치의 당위성도 논의된다. 특히 다문화·다인종 시대에 글로벌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명품 담론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수요일에 인문 향연'의 '인문학 특강'은 소설가 천승세의 '내 문학의 요람-전라도'(4월23일) 등으로 계속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사업 741억 투입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정보화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2008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비 232억원, 시비 126억원 등 모두 74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디지털 역량강화 ▲미래지향적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등 모두 4개 분야 67개 과제다.

시를 이를 위해 고객관리(CRM)시스템 구축 및 고객과 연계한 고객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전자금융 산업 육성, 시민밀착형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3차원 도시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및 도로 굴착·복구 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전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